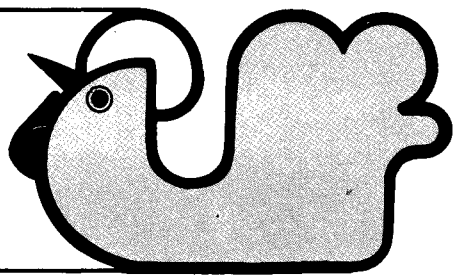
소식
대한양계협회



채란양계 소득표준율 20%인하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해마다 이때에 양계인들의 관심은 소득표준율이 되는데 금년 양계업의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이 7.2%로 채란계의 경우 20%가 하향조정된 것이다.

이는 본회에서 국세청에 소득표준율을 인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축산업 및 수렵업

가. 업태의 개념

○축산업은 소·말·돼지 등의 가축, 닭·오리·칠면조 등의 가금, 꿀벌 등의 곤충과 기타 육지동물을 사육, 번식하고 가치를 증식시키는 활동으로서 이들 동물들로부터 고기·젖·털·모피·알·꿀 등의 생산, 애완용·실험용 동물의 공급 또는 산림보호 및 종족보호를 목적으로 이들의 육지동물을 사육, 번식 증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운반·경기 등 특정활동에 관련된 동물의 사육과 판매장에서 판매에 관련한 사육관리 및 판매목적이 아닌 애완용동물의 사육관리는 제외한다.

○양잠업은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누에를 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렵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엽조수류를 증식하여 수렵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나 스포츠 활동적인 사냥활동은 제외한다.

나. 타산업과의 관계

(1) 주로 구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활동을 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제조업으로 본다.

(2) 주로 자가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하는 경우는 별도의 제조업으로 보지 않으나 별개의 제조공장 등을 설치하고 그 제조활동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상용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업으로 분리하여 파악한다.

축산업 및 수렵업

111-113. 축산업·수렵업

코드번호	종목 세분류	종목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최저율 (미만)	인하율 (이상) (미만)	기본율 (이상) (미만)	최고율 (이상)
111210	축산업	낙농	○낙농품 생산을 위해 젖소, 젖양을 기르는 업 (직접 생산한 젖을 살균하고 병에 넣어 시판하는 경우 포함)	21,000 5.2	21,000-23,000 5.8	23,000-158,000 6.4	216,000 8.7
111220		육우사육	○쇠고기 생산을 위해 소를 사육하는 업	전수입금액 0.0 ※단, 87년에 국한하여 적용함.			
111230		양돈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돼지를 사육하는 업(고기생산을 위한 멧돼지 사육포함)	19,000 5.8	19,000-21,000 6.5	21,000-139,000 7.2	192,000 9.9
111241		사슴		9,000 11.6	9,000-10,000 13.0	10,000-69,000 14.5	95,000 19.9

111249	축산업	기타가축 사 육	○고기, 모피, 털등을 생산하기 위한 기타가축의 사육(애완용을 제외한 개전문사육 포함) *가구나 특정사업체의 산업활동용 또는 애완용 가축사육(→111290)	10,800 10.0	10,800-12,000 11.2	12,000-80,000 12.5	110,000 17.1
111251		산 란 계		19,000 5.8	19,000-21,000 6.5	21,000-139,000 7.2	192,000 9.9
111252		육 계		19,000 5.8	19,000-21,000 6.5	21,000-139,000 7.2	192,000 9.9
111259		기 타 가금사육	○고기, 알 등의 생산을 위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등 각종 조류사육업 *판매목적의 관상용, 애완용조류 사육 (→111290)	10,800 10.0	10,800-12,000 11.2	12,000-80,000 12.5	110,000 17.1
111260		양 봉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 업	7,500 14.3	7,500-8,300 16.1	8,300-56,000 18.0	77,000 24.7
111290		기 타 축 산 업	○판매목적의 종축, 종금사육장, 애완용 및 관상용 조수류사육장, 실험용 동물사육장, 뱀, 곤충, 지렁이등의 육지동물을 사육 및 양식하는업 *식용개구리 양식(→130210)	10,800 10.0	10,800-12,000 11.2	12,000-80,000 12.5	110,000 17.1
111300	양 잠 업	양 잠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누에를 치는 업(잠종생산 및 치자전문은 양잠서비스→112300)	10,800 10.0	10,800-12,000 11.2	12,000-80,000 12.5	110,000 17.1
112211	축 산 서비스업	가금부화업 (허가사업)	○축산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부화업 허가를 받은자가 수행하는 가금부화업(가금사육 활용과 연관되지 않고 자기계정으로 가금을 부화하여 일반 및 가금사육업체에 판매하는 경우포함)	10,800 10.0	10,800-12,000 11.2	12,000-80,000 12.5	110,000 17.1
112212		가금부화업 (무허가사업)	○부화업 허가가 없는 자의 가금부화수입	7,100 15.1	7,100-7,900 17.0	7,900-53,000 19.0	73,000 26.1
112290		기 타 축산서비스	○양털깎기, 품종개량, 동물인공수정, 거세, 병아리 감별등	10,800 10.0	10,800-12,000 11.2	12,000-80,000 12.5	110,000 17.1
112300	양잠서비스	잠종생산업		12,500 8.6	12,500-14,000 9.8	14,000-91,000 11.0	126,000 15.2

홍보협찬금 33,300,000원 모금

—금년목표 1억5천만원—

△ 심준식 회장

△ 한재권 사장

본회는 중점사업으로 닭고기·계란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계농가 및 유관업체·단체 등에서 자발적인 협찬금을 현재 접수중에 있으며 4월 30일 현재 33,300,000원이 모금되었다.

금년도 홍보협찬금 목표는 1억5천만원이다.

4월중 50만원 이상 협찬(사진참조)은 다음과 같다.

○천호계우회(회장 심준식) : 1,000,000원

○종우회(회장 김교석) : 500,000원

○한재권(강남 부화장) : 500,000원

조리사 보수교육에 닭고기·계란 요리 강습회 실시

—1988. 5. 3~6. 3까지 경기도 31개 지역—

본회는 소비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조리사 보수교육에 닭고기·계란영양강의 및 요리 강습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리사 보수교육은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는 업소와, 대상업소중 미 고용업소에서의 실질적 주방조리 책임자는 법에 의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진행내용

교육내용	시간	비고
집객업소 위생관리	14:00-15:00	
올림픽과 우리의 자세 및 개인위생	15:00-16:00	
교육배경 및 국가기술자격취득 설명	16:00-16:50	
휴 식	16:50-17:00	
닭고기, 계란특성 및 영양강의	17:00-17:20	본회직원
닭고기, 계란요리 강습	17:20-18:00	담당

●지역 및 날자

지 역	월	일
구 리 시	5	3 화
과 천 시		4 수
성 남 시		6 금
수 원 시		9,10 월,화
시 흥 군		11 수
안 양 시		12 목
광 명 시		13 금
광 주 군		16 월
부 천 시		17 화
안 산 시		18,19 수,목
가 평 군		20 금
화 성 군		24 화
송 탄 시		25 수
평 택 시		26 목
평 택 군		27 금
김 포 군		30 월
강 화 군		31 화
안 성 군	6	1 수
이 천 군		2 목
여 주 군		3 금
용 인 군		7 화
고 양 군		8 수
양 주 군		9 목
양 평 군		10 금
의정부시		13 월
동두천시		14 화
연 천 군		15 수
포 천 군		29 수
파 주 군		30 목

본 교육의 프로그램은 한국조리사협회 인천직할시 지부에서 주관하며, 본회는 교육내용중에 닭고기·계란의 우수성강의 20분(본회 직원담당)과 요리강습회 내용 모두를 닭고기·계란요리로 강습키로 했다.

계분판매제도 개선건의

—봉합하지 않으면 가마니, 지대, 마대에 담을 수 있어—

본회는 지난 4월 11일(월) 농림수산부에 「계분판매제도 개선건의」를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특히 본회에서 건의한 주요내용은

1.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전기업화 됨에 따라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분량도 많아지고 있으며,

2. 최근에는 장기간에 걸친 양계불황으로 조금이라도 양계경영 합리화 및 환경공해 방지를 위해 생산되는 계분을 농장에서 발효건조시켜 비료가치를 높여 공급하고 있읍니다.

3. 그러나 현행 비료관리법 제23조 제2항의 포장에 대한 개념이 제품명을 비롯한 기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다만 운반수단으로 가마니, 마대, 지대 등에 담아 양계장에서 상인이 아닌 실수요자에 판매할 때에도 포장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고,

4. 계분의 성질상 수분이 많아 발효건조를 촉진시키기 위해 톱밥, 왕겨 등의 건조제를 첨가하기도 하는데 현행 비료관리법 제19조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 계분의 비료화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5. 양계농장 자체에서 생산되는 계분에 대하여는 운반수단으로써의 포장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왕겨, 톱밥 등 탈수제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계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건의합니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왔다.

—계분판매제도에 대한 질의 회신—

○비료를 생산 및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비료관계법규에 의하여 비료생산업허가 또는 비료판매업의 등록을 받아야하나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자가 그 생산과정의 부산물인 비료를 다른 비료의 원료로 판매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허가 또는 판매업의 등록을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적용의 예외규정을 두어 농·임·축·수산물의

부산물처리를 용이하게 하여 환경 위생개선과 아울러 영세농어가의 보호를 위한 조치임.

○따라서 농·림·축·수산업의 보호 육성과 환경위생상 개선 등을 위하여 생업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처리 등 그 지역 특수성을 감안 단순운반수단으로서의 비료표시 및 봉합을 하지 아니한 가마니, 지대, 마대 등에 이를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됨.

○계분을 발효건조 시키거나 계분에 톱밥, 왕겨 등을 첨가할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밝혀왔다.

4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지난 4월 19일(화) 오후 2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4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심준식)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계란가격 정상화를 위해선 후장기제도를 철폐하고 채란관련 단체들의 단합이 요구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계란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계란상인들이 소비신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쉽게 앉아서 장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앞으로는 생산자대표와 상인대표와의 대화창구를 마련, 대책회의를 통한 건전한 계란유통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불안정한 양계산업을 심도있게 다루는 조직의 일원화를 구성키로 논의하였다.

특히 근래 반복되는 이중난가 시세의 형성 원인은 물량의 체화현상에서도 기인한다고 전제, 앞으로 난가안정을 위해 생산자끼리의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한 생산감축 조절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을 결의했으며, 일부 악덕상인들이 취약지구 생산농가들의 약점을 적절히 악용하면서 난가시세 형성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시정키 위한 노력으로 생산농가에서는 자체지역의 계란상품을 향상시키고 후장기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단합키로 하였다.

또한 최근 양계농가에서의 종업원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 등 양계업계가 어려운 진로를 겪어야함을 직시하고, 각 지역에서의 무계획적인 입추관계 및 시설확장 문제는 전체적인 축산업계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 당분간 자제하는 방향으로 홍보키로 하였다.

한편 채란업자들의 조직강화를 위해서 우선 자체지역 생산자끼리의 긴밀한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으로 전국양계인 조직을 규합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계란 제값받기 운동을 위한 채란양계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본회가 전국의 양계인 조직을 일원화하여 교통통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실제 계란가격 안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해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하고, 계란가격 안정과 유통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채란업자들의 조직강화라는 시점에서 채란분과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전국채란양계인들을 포용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각지역 계우회 모임에 대해서는 본회에 가입하도록 권유키로 하는 한편 본회 채란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및 채란업자 조직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키로 하였다.

이같은 단합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5월 월례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되었다.

본회 88년도 대의원 선출

지난 4월 29일(금) 오후 2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88년도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대의원은 임기 2년의 자격으로 협회의 총회를 구성한다.

제2차 육용계 경제능력 검정
—오는 6월 8일부터 7주간 실시—

본회 닭경제능력 검정소에서는 88년도 제2차 육용계 경제능력 검정을 오는 6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7주간 실시한다.

이번 검정대상은 87년도 이전에 육용종계를 수입한 농장을 비롯 국산계 육용종계농장에서 생산된 품종과 외국에서 직접 출품하는 품종이다.

닭경제능력 검정은 품종간의 경제성을 검정하여 생산자들의 병아리선택에 지침서를 제공하는 한편 무능력한

외국품종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출품신청 마감은 5월 7일까지이며 종란집란은 5월 14~16일간으로 검정위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 집란한다.

닭류코싸이토준병 방역대책 건의
-양계업계 위해 조속한 대책 수립요구-

본회는 지난 4월 7일(목)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에 「닭류코싸이토준병 방역대책 건의」를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이번 닭류코싸이토준병 방역대책에 대한 주요내용은

1. 닭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닭류코싸이토준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배합사료에 첨가제로 사용해오던 피리메타민이 발암물질로 사용금지가 되었으나,

2. 동제품이 가격이 저렴하고 대체약품이 뚜렷치 않아 상당량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읍니다.

3. 그러나 올림픽경기를 앞두고 일반소비자의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돈육에 항생제 잔류문제 및 콩나물에 농약잔류 보도로 콩나물을 난지도 쓰레기장에 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읍니다.

4. 모기가 발생하는 계절을 당하여 금년에도 계란 등에 잔류성 유독물질 등이 사회여론화 되면 일반 선량한 양계업자에까지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5. 채란양계의 계속되는 낮은 난가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양계산업이 재기 불능상태가 되고 나아가 계란의 수입개방 구실을 줄 수 있으므로

6.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심하고 양계인들이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2일에는 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에 닭류코싸이토준병 방역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데 동물약품 업계에서도 발암성 약품의 사용금지는 물론 양계산물에 항생제 및 설파제의 잔류가 없도록 휴약기간을 지키고 약품의 남용 및 오용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농림수산부에서는 이의 회신에서 대일 축산물 수출과 올림픽을 앞두고 이의 잔류로 인한 피해예방과 축산물의 소비둔화에 의한 양계산업의 불황이 예기된다고 보고 전 동물약품 제조업소에 이를 알려 배합사료 제조업소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회신하여 왔다.

제18차 세계가금학회 위성회의 개최

중공의 수도 북경과 상해에서 개최되는 오리생산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은 본회에 5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① 기간 ; 88년 9월 9일~9월 19일(10박11일)

② 일정 ; 서울-홍콩-북경-상해-홍콩-서울

③ 요금 ; 1855$정도(공식비용) 비자취득비용 별도

'88 분회장회의 개최

지난 4월 11일(월)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분회장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조직강화 및 양계산업 전반에 걸친 당면 현안문제가 중점 협의되었는데 특히 서울·경기지부 설치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아 지부구성은 어렵다고 보았으며 현 분회를 더욱 활성화 시킨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회원확대 및 분회 활성화건에 대해서는 분회별로 미가입 양계농가로 하여금 적극 회원에 가입토록 권유키로 하였다.

4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전주 중앙신용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지난 4월27일(수) 오후2시 전주 중앙신용협동조합 회의실에서 4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가 개최되었다.

이날 지역별 정보교환에서 서울경기지역은 하이700원, 세미 680원에 거래되었고, 병아리값은 지역에 관계없이 120~150원이었으며, 입추상황은 병아리물량의 증가와 가격이 오르고 있어 양축농가들이 입추에 조심하는 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복경기 전망에서는 복병아리 주문을 평소의 입추물량보다 가수요없이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재 자기농장시설 규모의 60~70% 정도의 입추만 해도 충분한 물량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나누는 한편 현재의 사료생산량및 병아리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입추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이리소재 하림식품(대표 김홍국)의 도계장시설 견학 및 계열화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는 등 선진지 시찰을 가졌다.